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백 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과학기술부문 출판사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혁명, 기술혁명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각종 과학기술도서, 잡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265페이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내외의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들을 제때에 수집하고 분석연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알려주는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일을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것은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과 능력,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환경, 경제기술적토대와 잠재력 등에 맞게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정보들을 통보해준다는것을 말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원칙적문제로 나서는것은 과학기술통보사업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서고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조건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현실에서 요구하는 최신과학기술정보들을 제때에 통보해주어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할수 있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기본으로 하여 통보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기본으로 취급하는것은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환경에 맞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에 의하여 이룩된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성과보다 쉽게, 빨리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는 될수록 우리의것을 많이, 빨리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통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주체를 세우라는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지식이 력사적으로 계승되고 보급, 교류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의 하나이다.

개별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나 기술창조활동을 하는 기간은 제한되어있으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얻는 지식은 그 범위와 내용에서 제한되지 않을수 없다.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이미 마련해놓은 과학적인 재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풍부화해나가야 한다.

세계적범위에서 과학기술은 나라들사이에 부단히 교류되면서 발전한다. 사람은 민족국가단위로 하여 생존하고 발전하는것만큼 개별적인 한두개 나라가 인류의 모든 지적재부를 창조할수 없다.

지난날의 과학발전의 력사를 놓고볼 때 처음부터 모든 과학부문을 동시에 다 단독으로 발전시킨 나라나 민족이란 없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라 하더라도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을 해당 나라의 범위에서 빠짐없이 발전시킬수는 없다.

과학기술적원리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한 나라에서 창조된 과학기술적성과들도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화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서 창조한 새로운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도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이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승리의 전통만을 이어가며 만리마를 타고 비약하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전대미문의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가 선진과학기술은 물론 그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나 설비들, 지어 일반기계설비들과 생활용품까지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렬구를 내기 위하여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서 이룩된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개발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자금, 로력을 낭비하게 되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뒤떨어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없다.

우리는 자체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서 이룩한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압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현 실태와도 관련된다.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전문화, 세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들사이의 련관이 보다 밀접해지고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기술, 새 재료기술, 새 에너르기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이 출현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며 그 발전속도도 매우 빠르다. 실제로 정보기술은 등장한 때로부터 불과 수십년사이에 전세계에 광범히 도입리용되었으며 그것의 적극적인 개발과 리용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어 지난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생산에 도입되는데 한두세대의 기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수년, 지어 몇달로 줄어들고있다.

사회적부의 창조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몫이 점점 늘어나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들이 곧 상품으로 되어 널리 류통되고있으며 지적제품에 의한 리익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진보가 경제장성에 이바지한 비율이 20세기초에 5~20%였다면 20세기말에는 70~80%로 높아졌으며 21세기에는 90%까지 높아질것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적제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룩한 최신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기술통보사업은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매개 나라들사이의 사회발전정도와 과학기술수준, 기술장비수준 등 조건과 환경이 서로 차이나는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을 무턱대고 통보하여서는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아무리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라고 하여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과학기술은 쓸모가 없는것이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선진과학기술정보가 우리 혁명실천에 필요한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본 다음 통보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수준과 능력,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 등 우리의 실정을 잘 알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현실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거나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선진과학기술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과학기술적요구와 인식론리에 맞게 통보내용을 꾸민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과학기술통보자료의 선택과 작성에서 정확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수요자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과학리론적수준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이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원칙적문제로 나서는것은 과학기술통보사업이 과학기술적내용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이기때문이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취급하는것은 통보자들에 의하여 분석가공된 과학기술정보이다.

과학기술정보를 빨리 알려주는것을 임무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과학기술통보사업은 수많은 과학기술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초록이나 요지의 형태로 분석가공하여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과학기술정보의 선택과 분석가공, 통보자료의 작성에서는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를 선택하는데서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보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정보들을 가려내는것은 과학기술통보사업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가공과 그에 기초한 통보자료작성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원리와 인식론리에 맞게 통보내용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보를 받는 대상의 수준과 능력을 잘 알고 과학기술적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해나 해설을 달아주어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신속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새로운 최신과학기술정보들을 빨리 수요자들에게 알려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이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원칙적문제로 나서는것은 현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과학기술정보량이 급속히 증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들을 정확히 선택하고 신속히 통보해주는것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이전에는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던 과학연구성과들이 지금은 불과 수

년간에 이룩되고있는데 세계적으로 한해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발명건수는 약 150만건, 과학기술논문건수는 약 50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로 하여 생산설비와 제품들의 갱신주기가 지난 시기에는 보통 30~40년이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5~6년, 지어 어떤 부문들에서는 2~3년으로 비상이 단축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들을 수집장악하여 신속히 통보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며 통보사업의 매 공정에서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보사업에서 신속성을 보장하는데서는 정연한 통보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분석, 통보자료의 집필과 편집, 보급 등 통보사업의 모든 순차와 공정들이 잘 맞물려있고 정연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과학기술통보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세울수 있다.

과학기술통보사업이 한두건의 과학기술정보를 알려주는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통보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지 않으면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원만히 진행해나갈수 없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같이 과학기술통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은 물론 각급 도서관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정보봉사단위들에서는 통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들을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통보기관들사이의 협력과 령계를 강화하면서 과학기술통보체계를 더욱 발전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과학기술통보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과학기술통보, 과학기술정보